

백원국 2차관 ‘민자철도 지원기구 출범 교통 혁신 지원할 것’

- 정부와 민간이 하나로 뭉치는 민자철도 실현의 플랫폼 역할 주문 -

□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6일(화) 오후 3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교통연구원 ‘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’ 개소식에 참석했다.

* 참석: 2차관, 한국교통연구원 원장, 경영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, 철도공단 부이사장 등

□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민자철도사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출범을 축하하고, 정부가 약속한 “수도권 30분 출퇴근, 지방광역권 1시간 생활권 시대”를 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.

○ 백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“민자철도가 민간의 재원, 창의와 효율을 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누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”이라면서,

○ “민간은 사업성에 더해 공공성을 고민하고, 정부는 경제성 있는 민자철도 신설도 공익이라는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”하다고 밝혔다.

○ 또한, “지원센터가 업계의 의견과 정부 정책이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하여, 민자철도가 실현되는 플랫폼이 되어줄 것”을 당부했다.

□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「철도사업법」(’23.10.19. 시행)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한 민자철도 지원기관으로,

○ 금융·회계·법률·교통 등 민자철도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민자사업 발굴·기획,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 체결·관리, 유지·관리 평가, 민자철도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 등 민자철도 관리·감독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.

2024. 1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